

김문수 후보는 왜 기술유출 핵심 인물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습니까?

김문수 후보가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배경이 의문입니다.

김 후보는 쌍용자동차의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던 중국인 부소장 장 모씨의 출국금지 해제를 09년 1월 검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. 피의자 장 씨는 두 번이나 출국금지를 받은 기술유출 사건의 핵심인물입니다.

당시 김 후보 측은 중국 내 반한감정과 상하이차의 불만, 한국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
그러나 중국으로 떠난 기술유출 피의자는 결국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 사람은 기소중지가 되어 재판을 피했고, 쌍용차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. 국내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를 맞았습니다.

현직 광역단체장이 검찰에게 특정인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는 전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. 김 후보가 한 일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입니다. 혹여 기술유출 피의자에 대한 출구 열어주기 아니었는가 강한 의문이 듭니다.

김 후보는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. “중국은 뻥이 통한다. 산둥성 골프장 민원이 있었는데 산둥성장에게 기왕이면 좋은 땅으로 대토를 요구한 적이 있다”고 고백했습니다.

김 후보에게 묻습니다. 대체 무슨 배경이 있었기에 출국금지된 기술유출 피의자를 옹호한 것입니까. 쌍용차 노조에는 자살특공대라는 극언을 퍼부었으면서, 기술탈취 피의자에게는 관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.

기술주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도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. 김 후보는 중국 측 이익을 대변한 당시 배경에 대해 즉각 해명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5월 23일

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
단장 강득구, 부단장 정준호.박관천